

부모교육지원자료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훈육법

장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이와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동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훈육법

흔히 훈육하면 ‘흔낸다’ ‘꾸짭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잘못을 체벌과 거친 말,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말로 훈육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너는 대체 왜 그러니?’ ‘니가 그렇지 뭐’와 같이 아이의 기질을 부정하는 말을 조심해주세요. 또한, 훈육할 때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부모가 화 나서 혼내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단계별 훈육

1단계,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할 것 : 훈육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수치감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 감정은 빼고 객관적 사실만 전달할 것 : 아이가 물건을 던진다면 짧게 “던지지 마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에다 집어던져. 너 몇 번을 말했어. 지난 번에도 하지 말랬지” 등의 말은 현재 행동을 훈육하는 것에 효과가 없습니다.

3단계,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 것만 이야기할 것 : 이곳에서 일어난 것, 현재의 일만 짚어서 훈육해야 합니다. 과거를 들추거나 이전의 다른 실수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